

광주에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거래소' 건립

시, 'RE100 메가스테이션' 착공
서석동 '제로에너지'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에너지 ICT 기술 집약
탄소배출권 거래·기업 지원 역할

광주광역시 구도심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중개거래 거점센터가 들어선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광주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 과 전국 확산을 위해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확산 공모 사업 중 하나로,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따냈다.

RE100 메가스테이션은 신재생에너지 중개거래 거점센터이자 전기차 충전 거점 역할을 겸하는 스마트 에너지 통합 플랫폼이다.

메가스테이션은 RE100 실현을 위해 자체 에너지 ICT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의 실증 모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각각 15억 3750만원, 민간자본이 13억2500만원 등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광주시·동구·광주도시공사·㈜레플러스가 함께 추진 중이다.

건축 규모는 대지면적 1247㎡(약 377평), 연면적 554㎡(약 168평), 지상 3층으로 계획됐다.

건축물 내부에는 1층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장(28면)과 카페, 2층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서비스 거점센터와 통합관제센터, 3층에는 스마트오피스와 야외테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건물 자체가 에너

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제로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또 이곳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탄소배출권 거래,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 거래 관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도시 에너지 통합 관리,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홈 연계 기능 등 첨단 에너지 ICT 기술이 총집약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 동구는 인근 서점 건물과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지난해 11월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철거가 완료된 뒤 올해 3월까지 시설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4

~6월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선정·착공 준비를 마친 상태다. 광주시는 착공 신고까지 완료했으며, 7월 중에는 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증축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에너지 자립과 스마트도시 기능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축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이달 중으로 착공에 본격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Net-Zero) 광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이재명 대통령, 여성가족부에 "청년 남성 차별 대책 만들라"

복지부 "역차별, 자살 영향 보고"
법무부 "베트남 혼혈아 비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역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이환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겐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영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



빛나는 아이나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지하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일원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빛나는 아이나라'가 들어섰다. 개막을 이틀 앞둔 16일 시범운영이 시작된 가운데 유치원생들이 동화공작소 '움직임연구소'에서 동화 속 캐릭터들을 움직여보고 있다. '빛나는 아이나라'는 '빛의 뮤지엄' 및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으로 금남지하도상가 빈 점포 39개소를 개설했다. 김양배 기자

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

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